

민주 “송영길 ‘귀국·탈당’ 결정 존중…사건 신속히 규명되길”

민주 “귀국 계기로 사건 실제 신속 규명되길” 당 차원 조사에 “아직 기존 방침 바뀐 것 없어” 지도부 대응 비판에 “늦기보다 신중한 것”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휩싸인 송영길 전 대표의 탈당과 조기귀국 결정과 관련해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역 의원 다수가 연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권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송 전 대표의 즉시귀국과 자진탈당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송 전 대표의 귀국을 계기로 이번 사건의 실체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규명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송 전 대표가 귀국해 그동안 캠프에서 일어났던 일이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비롯해 책임있는 자세로 검찰 수사나 이

런 것에 응하는 것은 실제 규명 위해 매우 필요하고 도움도 되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송 전 대표의 귀국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혹을 전면부인하고 있는 만큼 당 차원의 조사가 필요한 당내 일각의 요구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 대응이 늦다는 지적에 대해 “대응이 늦다기보단 신중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한 것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당 차원의 조사기구는 꾸렸나’는 취재진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기존 방침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만 다양한 방식으로 상황 파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송 전 대표가 검찰 수사를 겨냥해 민주당에 적극 대응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선 “향후

사건 내용이 좀더 규명되기 시작하면 여러가지 대책을 검토하고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박 모 보좌관이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함께 일했던 전력을 두고 사법리스크를 묶어 수사하는 것 같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법적 혐의를 확정짓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일부 의원들이 ‘돈봉투 정보지(짜라시)’ 유포에 개별적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에서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방침은 현재로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송 전 대표의 선거캠프가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정치자금 9400만원을 살포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그는 전날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가 오고갔다는 의혹에 대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귀국 일정과 관련해서는 24일 오후 3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검찰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오늘 오후 3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서동욱 전남도지사,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함께 고민할 것”

지난 21일, 제9회 전남 사회복지사 대회 참석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21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제9회 전남 사회복지사 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최선국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정병관 전남사회복지사협회장,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등 1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공자 표창과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서동욱 의장은 축사에서 “9년 전 송과 세 모녀 사건 이후 많은 경각심을 갖고 있었지만 안타깝게 작년에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했다”며 “우리 사회에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사회안전망이 촘촘하지 않다는 방증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에만 의존해서는 완벽한 사회복지망을 구축하기 어렵다”며 “현장에 계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현장의 지혜가 전남형 복지정책으로 발굴되고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며 “도의회에서도 근로시간 단축, 휴게시간 보장, 임금 현실화 등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주 북구의회, 오월 영령 참배 진행

광주 북구의회가 지난 20일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하여 역사교육과 참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북구의회 개원 32주년 기념 주간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60여명이 참여하였다. 참배에 앞서 5·18민주화운동 역사를 제대로 알고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자 전문강사로부터 5·18민주화운동의 전개과정과 의미에 관한 강의를 수강한 후 추모탑 앞에서 헌화·분향하며 참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영면하신 오월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이어 전·현직 북구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의 가족 묘소를 찾아 군부독재에 맞서 싸우다 희생하신 고인들을 참배하는 시간을 가져 의미를 더하기도 했다. 김형수 의장은 “5·18 민주화 운동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라며 “송고한 희생으로 오늘을 밝히는 햇살이 되신 오월 영령들을 항상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